

한은 기준금리 인하...광주·전남 내수 살아나나

0.25%p 인하 2.75%로...올 성장률도 1.9%→1.5% 0.4%p 하향 경기 살리기 조치...지역경제 내수 활성화·수출 전략 수정 불가피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이는 지난달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경제 지표 악화가 더 심각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역시 부진한 내수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전략 수정 역시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한은)이 25일 발표

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한은이 연중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조정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금통위에서 2023년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 낮춘 뒤 27개월만이다. 한은이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및 트럼프 정부

의 관세정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기록하는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역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 발표한 지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광주·전남지역 CCSI는 84.5를 기록해 전국 CCSI(95.2) 대비 10.7p 낮게 집계되는 등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내수판매 지수는 72.4로 전월(69.4) 대비 3.0p

올랐고, 수출전망 역시 80.6에서 82.3으로 1.7p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 및 수출 관련 지수들이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도 '제품 판매 부진'(36%)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등 지역 경기는 암울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경기 부양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이는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민간 소

비 및 투자 등 내수부터 살려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11월 두차례 연속 0.25%p씩 총 0.50%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첫 금통위인 지난 1월에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교환율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국내 경기 및 성장 지표들이 더욱 악화됐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압박이 커지면서 이번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고객 목소리 듣는다...광주은행 '톡톡 자문단' 발대식

자문단 8명 11월까지 활동

광주은행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톡톡(Talk-Talk)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톡톡 자문단은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9기를 맞았다. 자문단은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8명의 새로운 자문단이 제9기 자문단 위원으로 선발돼,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정기회의를 통해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이같은 의견들과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목소리들을 향후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사항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자문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목소리가 은행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정성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모범 부동산중개소 도입한다

30곳 선정...2년간 자격 유효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모범 부동산중개소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3647개소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중인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모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3곳, 서구 7곳, 남구 4곳, 북구 8곳, 광산구 8곳이다. 광주시는 지정에 앞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 협력해 신청 자격, 중개실무, 거래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14개 분야 평가기준을 마련해 심사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는 오는 3월1일부터 오는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광주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사무소에 지정 현판



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중개사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계약 동행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 사전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조성 속도...다음달 지정될 듯

경제장관회의 신속 추진 지원 결정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가 신안 자은-임자 일대에 추진중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의 평가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투

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4월 신안 자은-임자 일대에 12개 단지 3.7GW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키로하고 지정을 신청한 뒤 11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2GW(10개 단지)로 변경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회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오는 33년까지 19조원이 투입된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124MW)의 25배에 이른다. 산업부는 현재 전문가평가 및 집적화단지 지정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 등 관련 평가절차를 진행 중인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평가 절차를 끝내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등 세계적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으로 신속히 집적화단지를 지정받아 풍력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4월 신안 자은-임자 일대에 12개 단지 3.7GW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키로하고 지정을 신청한 뒤 11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2GW(10개 단지)로 변경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회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오는 33년까지 19조원이 투입된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124MW)의 25배에 이른다. 산업부는 현재 전문가평가 및 집적화단지 지정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 등 관련 평가절차를 진행 중인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평가 절차를 끝내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등 세계적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으로 신속히 집적화단지를 지정받아 풍력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상의 50대 규모 신설 주차장 완공식

인근 주택부지 10여채 구입 건립

광주상공회의소가 25일 신설 주차장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광주상의 의원,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상의는 신설 주차장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약 10여채의 회관 주변 주택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지상 주차장에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 최대 5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완공했다. 주차장은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상원 회장은 "이번 주차장 신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기업과 회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요한 투자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민들과도 함께 호흡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부, 다음달까지 '백년소상공인' 신규 접수

100개사 내외 선정 각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3월 31일까지 '백년소상공인'을 신규 접수한다. 올해는 업종과 지역별 경쟁률 등을 고려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합해 10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공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이 대상이다. 경영역량과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지역 주민의 인지도 투표 결과도 평가에 반영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서와 함께 인증현판과 성장스토리가 담긴 스토

리보드를 제공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3~5점) 적용과 우선 선정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0.29 (-14.98)
↓ 코스닥	769.43 (-3.90)
↓ 금리(국고채 3년)	2.596 (-0.014)
↑ 환율(USD)	1431.65 (+4.25) (오후 5시 55분 기준)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품 버블호떡 맛 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이벤트홀 '명품 버블호떡' 팝업 매장에서 직원이 다양한 호떡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푸드메뉴에서 오는 27일까지 다양한 먹거리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명품 버블호떡' 팝업 매장은 옛날 호떡 맛을 그대로 재현했고, 부산지역의 푸드트럭으로 유명한 '문토스트' 팝업 매장은 프리미엄 치즈로 만든 다양한 토스트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CJ푸드빌 푸레쥬르 다음달부터 빵·케이크 가격 5% 인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는 다음 달부터 빵과 케이크 110여종의 가격을 평균 약 5% 인상한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푸레쥬르는 다음 달 1일부터 데일리유식빵을 기존 35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단팻빵 가격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고, 낙엽소시지브레드는 2600

원에서 2700원으로, 폭신폭신포니빵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케이크 중에선 부드러운 고구마마파 케이크가 3만원에서 3만 1000원으로 비싸진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주요 원재료와 각종 제반 비용이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도 지난 10일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등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다. /연합뉴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고도화 10개·기초 30개사 전남TP, 4월까지 기업 모집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오는 4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함께 '2025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분야) 구축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으로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분야) 구축지원 사업'은 그동안 모든 제조업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오던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남 소재 식품분야 제조기업(표준산업분류 코드 C10, C1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기초', '고도화' 유형이 있다. 기초유형은 30개사를 지원하고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을, 고도화 유형은 10개사를 지원하며 이물질선별기, 금속검출기 등 품질 검사장비를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 '기초 유형'은 스마트공장을 처음 신청하는 정보통신기술 미도입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고도화 유형'은 기존 유형을 지원받았거나 중간1(데이터 자동 수집 및 설비 자동 제어) 수준 이상을 목표로 구축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